

전주아중초, ‘IB 월드스쿨’ 인증

전북 최초로 이름 올러
인증 기념·현판 기념식
도내 공교육 새 이정표

전주아중초등학교(교장 김태유)의 IB 월드스쿨 인증을 축하하고, 세계 교육 무대로의 도약을 응원하는 자리가 마련됐다.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에 따르면 28일 도내 최초 IB 월드스쿨(PYP)로 인증을 받은 전주아중초에서 ‘IB 월드스쿨 인증 기념식’을 개최했다.

이 행사는 지난 10월 13일 국제바칼로레아 본부(IBO)로부터 IB 월드스쿨 공식 인증을 획득한 것을 기념하기 위한 자리로, 학생·교직원·학부모뿐만 아니라 지역 교육계 인사들이 함께 모여 전북 공교육의 새로운 이정표로서의 출발을 축하했다.

기념식은 교실 수업 참관을 포함해 인증패 수여, 현판 제막, 테이프 커팅, 기념촬영 순으로 진행됐다.

앞서 전주아중초는 2024년 IB 교육과정 도입을 위한 정책연구학교로 지정된 이후 탐구 중심 수업과 평가 혁신, 교사 전문성 강화에 힘써왔다. 2년여의 준비 끝에 2025년 10월 13일, 국제 바칼로레아 본부(IBO)로부터 정식 인증을 받아 전북특별자치도 최초의 IB 월드스쿨로 이름을 올렸다.

IB 월드스쿨 인증은 학교의 교육과정·수업·평가·학교문화 등 전 영역에 걸쳐 국제적 기준에 부합함을 인정받은 것이다. 이는 단순한 프로그램 참여를 넘어, 학생 주도성(Agency)과 탐구(Inquiry) 중심 학습, 성장 중심 평가가 실제 학교 현장에 자리 잡았음을 보여주는 결과다.

특히 전주아중초의 IB 월드스쿨 인증은 ‘전북형 수업·평가 혁신’의 대표 모델로 평가받고 있다.

그동안 전북교육청이 추진해 온 ‘전북형 수업·평가 혁신’의 현장 정착을 앞당기는 초석이자 탐구 중심 수업과



28일 도내 최초 IB 월드스쿨(PYP)로 인증을 받은 전주아중초에서 ‘IB 월드스쿨 인증 기념식’이 열린 가운데, 유정기 전북교육감 권한대행, 김태유 전주아중초 교장 등 참석자들이 테이프 커팅을 하고 있다.

학생 성장 중심 평가의 체계적 실천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갖췄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전북교육청은 전주아중초의 월드스쿨 인증을 계기로 MYP(중학교 과정)·DP(고등학교 과정)까지 단계적 확산을 지원하고, 컨설팅·교원 전문성 강화(IBEC, 과장별 워크숍, 현장 코칭)와 투브리·포트폴리오 기반 평가모델 보급을 통해 수업·평가의 질을 더욱 제고해 나갈 계획이다.

김태유 교장은 “이번 인증은 교사·학생·학부모가 함께 만들어 낸 결실

이며, 우리 학교 교육이 국제적 기준 내에서 검증됐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며 “앞으로도 학생이 배우는 과정을 스스로 설계하고 성장의 의미를 찾아갈 수 있는 교육을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유정기 교육감 권한대행은 “지난해부터 IB 프로그램을 도입해 관심있는 학교에 꾸준히 지원하고 있다”며 “교사 역량 강화를 위한 연수 및 컨설팅 지원 등을 통해 현장의 노력을 적극 뒷받침하겠다”고 말했다. /장은성 기자

28일 도내 최초 IB 월드스쿨(PYP)로 인증을 받은 전주아중초에서 ‘IB 월드스쿨 인증 기념식’이 열린 가운데, 유정기 전북교육감 권한대행, 김태유 전주아중초 교장 등 참석자들이 테이프 커팅을 하고 있다.

4개 권역 산업안전 역량 강화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은 28~31일까지 4개 권역에서 하반기 안전 역량 강화 교육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 교육은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안전보건 의무이행 조치와, 산업안전 업무의 전문성 향상을 목적으로 마련됐다. 각급 기관과 단설유치원, 공·사립 초·중·고·특수학교 산업안전 업무 담당자 800여 명이 참여할 예정이다.

교육은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보건 의무이행 사항 △물질안전보건자료(MSDS) 및 보건관리 △유해·위험요인 주요 사항과 사고 사례 등 실무 중심으로 구성됐다. /장은성 기자

‘우리들의 손으로

만드는 세상 한 컷’

전북대 지역디지털미디어센터 사회참여형 학생 영상 공모대회

전북대학교 지역디지털미디어센터(센터장 최용준)는 전북특별자치도 교육청과 공동으로 ‘2025 사회참여형 학생 대상 영상공모대회’를 개최한다고 28일 밝혔다.

“우리 손으로 만드는 세상 한 컷”이라는 주제로 열리는 이번 공모전은 ‘30초 이상 영상이면 누구나 출품 가능하다. AI 도구 활용 영상도 허용되는 등 다큐, 브이로그, 애니메이션 등 장르 제한 없이 창의적인 작품을 접수하면 된다.

이를 통해 빠르게 확산하고 있는 생성형 인공지능 도구에 대한 창의적 활용 및 윤리적 활용을 고민할 수 있는 기회도 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공모전은 도내 초·중·고교 학생뿐만 아니라 학교 밖 청소년도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작품 접수는 11월 17일까지 신청서와 영상을 전북대학교 지역디지털미디어센터(jbdmcd4@gmail.com)로 제출하면 된다. 자세한 내용은 공모전 포스터의 센터 이메일 및 전화(063-270-2808)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최용준 센터장은 “이번 영상공모전을 통해 미디어를 단순히 소비하는 것에서 벗어나 내가 사는 세상을 새로운 시선으로 바라보고 미디어 결과물로 창조·공유할 수 있는 장이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장은성 기자

‘디지털 수업, 함께 열다’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은 10월 31일부터 11월 28일까지 도내 94개 학교에서 ‘2025 전북 AI-디지털 클래스 페스타’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 행사는 AI·디지털 활용 교원 역량 강화 및 학생 맞춤형 수업력 향상과 확산을 위해 마련됐다.

디지털 선도학교 대표 교사와 디지털 기반 교육혁신지원단, 역량강화 연수 이수 교사들이 AI·디지털 활용 수업을 공개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전주 19개교, 익산 17개교, 군산 11개교 등 도내 시군 전역에서 참여한다. 학교급별로는 초등 71개, 중등 11개, 고등 10개, 특수 2개 학급 등 총 94개 학급에서 진행된다.

이를 위해 전북교육청은 AI디지털 현장지원단과 수석교사를 활용한 사전 컨설팅을 진행, 수업의 질을 높이고자 했다. 특히 수업 전 사전 협의와 수업 후 사후 협의를 운영해 참관 교사들에게 실질적인 학습의 기회와 교실 수업

전북 AI-디지털 클래스 페스타

31일부터 내달 28일까지 개최

에서 즉시 활용할 수 있도록 했다.

오선화 미래교육과장은 “AI-디지털 클래스 페스타는 AI디지털 현장지원단과 수석교사의 사전 컨설팅을 통해 내실 있게 준비된 수업을 교사들이 직접 보고 배울 수 있는 소중한 기회”라며 “단순히 수업을 공개하는 것을 넘어 현장 친화적인 수업 문화를 만들어가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장은성 기자

새만금 기반 미래전략산업 혁신 생태계 구축

전북대-한국조선해양기자재연구원, 협약 체결

글로벌 JUIC 트라이앵글 전략, 산업협력 단계 본격

전북대학교(총장 양오봉)가 글로벌 대학30 사업을 통해 추진하는 JUIC Triangle(대학-산업-도시 상생 모델)이 본격적인 산학협력 단계에 돌입했다.

28일 전북대에 따르면 이날 본부 4층 총장실에서 한국조선해양기자재연구원(KOMERI, 원장 배정철)과 새만금을 기반으로 한 미래 전략산업 혁신 생태계 구축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전북대가 추진 중인 ‘JUIC@새만금 클러스터’의 핵심 산업 축을 강화하고, 지역 산업 구조를 그린 수소 에너지와 방위산업, AX(AI Transformation) 기반의 첨단 제조혁신



체제로 전환하는 중요한 디딤돌이 될 전망이다. 협약을 통해 양 기관은 전북대 새만금프린티어캠퍼스 부지를 활용한 공동 연구·실증 기반을 구축하고, 그린

수소 에너지와 방위산업, AX 분야의 연구 인프라 및 기술 교류 확대해 나가기로 했다.

또한 첨단 산업기술 전문인력 공동 양성 프로그램 운영과 지·산·학·연 공동 캠퍼스 구축을 통한 산업생태계 활성화 등 다각도의 협력체계를 구축하기로 했다.

이날 한국조선해양기자재연구원은 전북대 발전을 기원하며 1천만 원의 발전기금을 기부하기도 했다.

양오봉 총장은 “이번 협약은 전북대가 지역 상생을 위해 적극 추진하고 있는 JUIC Triangle 전략이 구체적으로 산업 현장에서 실현되기 시작했다는 중요한 기점”이라며 “대학과 기업, 연구기관이 함께 혁신 성장을 이끄는 산학 혁신 모델을 구축하겠다”고 말했다. /장은성 기자

AI·클라우드 융합 인재 양성… 전주대, 디지털 최상위 교육과정 개설

도내 취업준비생 등 대상

전주대학교가 전북특별자치도와 함께 추진하는 ‘2025 디지털 최상위 전문인재 양성사업’의 본격 개강을 앞두고 수강생 모집에 나섰다.

28일 전주대에 따르면 모집 대상은 디지털 실무 역량 향상을 희망하는 전북에 거주하는 취업준비생 및 도내 대학(원)생이며, 서류 평가 이후 면접 전형 등을 통해 최종 교육생을 선발한다.

이번 과정은 AI, 클라우드, 데이터 분석 등 첨단 디지털 분야의 실무 역량을 함양할 수 있도록 설계된 실습

중심 프로그램으로, 2025년 11월 27일부터 2달간 진행될 예정이다.

아울러, 카카오프 클라우드 환경 기반 실습 중심 커리큘럼으로 구성, 수강생은 Python, Pandas, SQL, Airflow, AWS Lambda, Glue, Streamlit, QuickSight 등 핵심 기술을 체계적으로 학습하게 된다.

실습을 통해 데이터 수집·처리·시각화·자동화 프로젝트를 직접 수행하며, 기업 현장에서 요구되는 디지털 솔루션 구현 역량을 익힐 수 있다.

또한 IaaS·PaaS·SaaS 구조 이해, RedShift·Athena·API 활용 데이터 분

석 등 실제 산업 수준의 클라우드 환경을 체험할 수 있다.

교육생에게는 △멀티클라우드 사용료 제공 △인프라 등 1,600개 강의 콘텐츠 제공 △현직자 멘토와 함께하는 캠프 등의 혜택이 주어진다.

한동욱 RISE사업단장은 “이번 교육 과정은 단순한 IT 기술 교육이 아니라, 데이터 기반의 문제 해결 역량과 실무 중심 사고력을 강화하는 전문 교육”이라며 “디지털 산업의 중심에서 활약할 미래형 인재로 성장할 전북 청년들의 많은 관심과 지원을 바란다”고 당부했다. /장은성 기자

“다름을 인정하는 공동체적 배움”

전북미래교육연구소 “전북교육 혁신 이뤄낼 터”

“교육대개혁국민운동본부와 함께 전북교육의 혁신을 이뤄내는 데 앞장서겠습니다.”

전북미래교육연구소(소장 천호성, 전주교대 교수, 사진)는 28일 보도자료 통해 “우리가 바라는 교육은 어느 아이도 낙오하거나 소외되지 않는 교육”이라며 “아이들이 시험 점수의 높낮이에 따라 서열화되지 않고, 서로의 다름을 인정하며 존중 속에서 배우는 공동체적 배움이 이뤄져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또한 “교육은 인간의 존엄과 공동체의 감수성을 기르는 사회적 실천”이라며 “모든 아이의 성장과 발달을 사회가 함께 책임지는 포용적 교육을 만들고자 한다”고 강조했다.

전북미래교육연구소는 “교육의 주체는 국민”이라며 “교사와 학부모, 학생과 시민이 함께 참여하고, 지방정부와 민간, 정치가 협력하는 참여·자치·소통의 교육 체제로 전환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교사는 배움의 길을 함께 걷는 동반자며, 학생은 변화의 주체고, 지역은 배움이 살아 숨쉬는 터전이며, 시민은 교육의 공동 책임자”라며 “이 네 주체가 연



결될 때 교육은 사회 전체를 변화시키는 힘이 된다”고 덧붙였다.

마지막으로 “이 모든 변화는 정부나 제도만의 몫이 아니다”라며 “교사와 시민, 학부모와 학생이 함께 참여할 때, 비로소 교육은 사회를 바꾸는 진정한 힘이 된다”고 말했다.

한편 AI 시대, 기후위기, 민주주의의 위기, 지방소멸, 초저출생 같은 총체적 위기에 직면한 오늘, 교육은 더 이상 과거의 틀로 지속될 수 없다며, 임시경쟁과 불평등을 넘어 우리 교육의 근본적 전환을 촉구하기 위해 지난 20일 교육대개혁국민운동본부가 창립됐다. /장은성 기자

‘오늘은 무슨 급식이 나올까?’

전북교육청, 제7회 행복한 학교급식 공모전 수상작 발표

‘그림일기’ 이세령, ‘포스터’ 김하숨·김현중 등 대상 수상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이 ‘제7회 행복한 학교급식 공모전’ 수상작 95점을 선정, 발표했다.

28일 전북교육청에 따르면 기후위기에 대응한 지속가능한 생태 환경급식을 위한 교육공동체의 참여를 확대하고, 학교급식에 대한 인식전환의 계기를 마련하고자 이 행사를 진행했다.

그 결과 그림일기(초 1~3학년), 포스터(초 4~6학년/중·고생), 캠페인 사진(초·중·고생 및 교직원, 단체전), 솜뿔(초·중·고생 및 교직원, 단체전), 이모티콘 등 6개 부문에서 총 895점이 접수됐다.

이후 식생활교육, 학교급식, 미술분야 전문가 심사위원을 구성, 공정한 심사를 거쳐 각 부문별로 대상 1·최우수상 2·우수상 3작품과 장려상 59 작품 등 총 95작품을 선정했다.

분야별 대상으로는 △그림일기 이세령(전주초포초 3) △포스터 김하숨(전주화정초 6)·김현중(이리남중 3) △캠페인 사진 조윤아(설천초 교사) △솜뿔 무주초(호가영 교사) △이모티콘 김보경(전주우아중 1) 등이었다.

수상자들에게는 교육감상과 상금 또는 문화상품권이 주어지며, 수상작은 자료집으로 제작해 각급 학교와 교육지원청에 배포할 계획이다.



제7회 행복한 학교급식 공모전 그림일기 부문 대상 수상작. <사진=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제공>

강양원 문예체전감각과장은 “학생 및 교직원이 학교급식을 통해 건강한 식생활과 배려·존중의 인성, 나아가 지구환경을 생각하는 생태급식 실천문화를 공유하고 확산하는 장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우리 아이들이 바른 식습관을 형성하고 감사한 마음을 표현할 수 있는 공모전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장은성 기자

전북대, 동물용의약품 생산밸리 비교과과정 운영

내달 27일까지 7개 과정으로 구성… 실무중심 역량 강화

전북대학교(총장 양오봉)는 글로벌 대학30 사업의 핵심 추진 과제인 ‘JUIC Triangle’ 사업의 일환으로 동물용의약품 생산밸리 조성사업 3차년도 비교과 과정을 본격 운영한다고 28일 밝혔다.

지난 5월 8일 시작된 이 프로그램은 오는 11월 24일까지 총 7개 과정으로 구성됐다. 이는 펫·바이오 및 동물용의약품 산업 현장에서 요구되는 실무 중심의 역량 강화를 목표로, 전북대와 협력 연구기관의 교수진이 직접 참여해 교육의 전문성과 현장성을 높이고 있다.

이를 통해 전북대는 지역 산업체 및 연구기관과 연계한 현장 맞춤형 전문인재를 양성하고, 동물용의약품 생산밸리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지속 가능한 인재 생태계를 구축할 계획이다.

박철 교수(수의과대학)는 “이번 비교과 과정은 대학이 지역 산업의 성장 축으로 자리잡기 위한 실질적 협력의 일환”이라며 “학생들이 최신 기술과 산업 트렌드를 접하며 현장 실무 역량을 갖춘 인재로 성장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이정환 지역혁신센터 센터장은 “전북특별자치도가 중점적으로 추진하는 동물용의약품 산업 분야에서, 이번 과정을 통해 실무형 전문 인력 양성이 가능해졌다”며 “지속적인 비교과 프로그램 운영으로 지역 산업 발전에 기여하겠다”고 전했다. /장은성 기자